

(주)아모스

코어 전문 생산업체

아모스는 '믿음·소망·사랑'을 사훈으로 고객이 있고 종업원이 있음으로 회사가 있다는 철저한 경영이념하에 고객감동(Customer Satisfaction)과 종업원 감동(Employee Satisfaction)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새로운 가치창조에 도전하여 21C 세계적인 Leading Company를 목표로 1994년 10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설립되었으며 기술의 세계화, 영업의 세계화, 조직의 스피드화 조직의 자율화, 품질의 기반화, 가격경쟁력의 극대화를 21C 경영전략으로 수립하고 매출액 10%이상의 연구개발투자, 팀장중심의 자율적인 조직체계,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및 수출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종합부품Maker를 목표로 전 조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



- 대표 : 김병규
- 주소 : 경기 김포시 통진면 수참리 189-4
- TEL : 0341)989-0506
- FAX : 0341)989-3377
- 주요생산품목 : 아모퍼스 코어

품 Maker를 목표로 김병규 대표이사 외 6인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비정질 연자성 합금(Amorphous Magnetic Alloys) 및 코어 기술분야에서 수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독점해 오던 기술제품의 기술종속에서 벗어

'Toshiba', 'Mitsui'와 함께 세계 5대 Maker로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액의 10%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책임지는 연구풍토를 정착시켜 내부적인 연구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부설연구소의 확대개편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석·박사 10여명)을 적극 확보하였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정보 Net-Work구축에 성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결과물의 수집 및 분석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의 가포화 코어 중심의 생산을 휴대형 이동통신 장비 및 DC-DC컨버터를 포함한 스위치 전원장치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고효율에 적합한 고품질 비정질 코어의 생산증대 및 1999년

비정질 연자성합금 및 코어 기술분야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 기술종속 벗어나

다가오는 21C는 기술경쟁력만이 존재이유라는 판단으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종합부

나 기술자립을 실현하였으며 미국의 'AlliedSignal', 독일의 'Vacuumschmelze', 일본의

부터 무선단말기 적용되는 박형 인덕터를 코어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매출증대가 예상되며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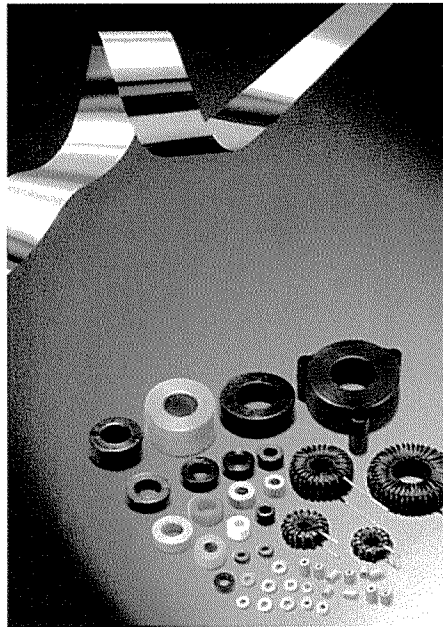
신용 부품에 적합한 ISDN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의 코어의 생산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동남아 중심의 수출에서 대규모 인터커 제조회사가 밀집한 미주지역을 집중공략하여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으로 수출다변화의 노력으로 현재 일부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국내시장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며 국내매출 증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자동화 및 제조설비의 개선을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품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직원 한사람까지도 제품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비정질 자성합금은 용융 상태의 금속을 고속으로 회전 중인 동합금 롤 위에 분사시킴으로 10°K/sec이상의 속도로 급속 냉각시켜 제조되는 두께 20~25μm 정도의 극박 형상의 신소재이다.

금속의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며 고체화되는 결정화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체 상태에서도 액체상태의 무질서한 원자 배열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래의 결정질 재료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100KHz 이상의 고주



파 영역에서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갖는 비정질 자성합금 및 향상된 직류중첩 특성을 갖는 자성합금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고주파, 저손실 가포화 코어 개발, 고주파·고압용 트랜스포머 개발, 이동통신 단말기용 박형 인터커 개발, PCMCIA 카드용 박형 펄스트랜스포머 개발 등 각종 정보, 통신 및 산업용 비정질 자성부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기술부품 중심으로 생산량의 증대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비정질 자성부품의 시장은 연 20~3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형, 경량화 및 에너지 대책 요구 등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전원장치용 자성부품의 경우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원장치의 대용량화와 더불어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품질 코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관련 제품의 매출에 주력할 것이며 이동통신의 발달과 노이즈 대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용 박형 인터커 및 각종 노이즈 대책용 코어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ASDL, HDSL 등 XDSL의 규격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ISDN 인터페이스용 코어의 수요가 1999년을 분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아모스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과 고효율, 소형화 및 다양한 특성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는 것이 발전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제품개발, 제품개발기간의 단축, 신속한 양산체제 구축, 공정자동화 및 완벽한 품질을 목표로 개발연구원의 마케팅 지원, 생산공정 및 공정자동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전사원이 고객위주의 사고를 통한 제품개발 및 제품 생산을 통해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모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